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어버어주일 메시지

유니게의 축복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
(딤후 1:5)

유니게는 여인 중에 최상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자는 갑부의 아내로,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어 복을 받았다 하나, 여인이 받아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은 이런 것보다 뛰니 뛰니 해도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바울의 총애와 신뢰를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부터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다복한 청년을 아들로 가진 유니게는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은 여인인지 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이런 자녀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바란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유니게는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유니게는 여인 중에 최상의 사업을 이룬 여인입니다

인생은 관광객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일없이 한량배로 살다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사업이 있다면 정당한 가정에서 자녀를 옹계 키우고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과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회에서 유용한 인물로 주신 아들을 키워 낸 유니게는 여인으로서의 가장 귀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입니다.

문노니, 당신의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니게는 여인 중에 최상의 유산을 남긴 여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값진 것을 남길 수 있어야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 사업이나 사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인으로서 가장 좋은 유산은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과 사회에 유용한 인물로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남겼지만, 롯의 비극은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남겨 하나님을 대적케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남기고 갈 것은 가정주관을 맞이하여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로목사 이종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후 5:4)



오늘은 아버지 주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별도의 교회 내 행사 생략
유·초등부 학생들이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찬양 영상 공유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주일로 지킨다. 예년에는 교회학교에서 주일예배 시간에 본당에 입장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 1국 학생들이 찬양으로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를 전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의

행사를 생략한다. 이에 유·초등부는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담아 교회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모아 편집하여 오늘 교회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올린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5월 정기당회

당회는 지난 수요일 개최된 5월 정기당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우선 당국의 방역지침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일반 학교의 등교수업도 이번 주부터 단계별로 개시됨에 따라 우리 교회 내에서의 교회학교 예배와 집회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 교회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장도 감안한 조치로서 다만 그 재개 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해당부서의 준비가 되는대로 각 부서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 달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나 인도 등 해외 지역 선교지의 긴급구제 요청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정기당회에서 통과된 지난 달 재정보고 중 지출의 최대 항목은 국내·외에 보내지는 수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도와 선교 지원비이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벌써 2개월 여 교회예배조

차 제대로 드러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도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정성스런 헌금을 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당회서기의 보고도 있었다.

위와 같은 안건 이외에도 그동안 오랜 기간의 교회 분쟁상황과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모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각 선교회, 전도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결속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교회 3대 행사는 각 선교회, 전도회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2020년 흥해작전, 바자, 사명자대회를 주관할 선교회와 전도회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6월 6일(토) 시작되는 흥해작전 계획과 조직도 확정하였다.

여러 성도들께서는 담당하게 된 교회 3대 행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소 침체된 선교회 전도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

2020 서울교회 흥해작전 조직

5월 정기당회에서 2020 흥해작전 조직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지도: 서명철 목사
- 부장: 오광환 장로 · 차장: 박광식 집사
- 기획: 박상훈(팀장) 이윤경2

- 예배: 채교전(팀장) 예양식 정금희1
- 찬양: 한상준(팀장) 유기순 이현정1
- 동원: 차영도(팀장) 김진달 김애리1 전미경
- 홍보: 홍창훈(팀장) 유외숙 김규태 유은경
- 봉사: 박현영(팀장) 김영현 위성남 권사회
- 차량: 오윤걸(팀장) 김용기 백도환 스테반회
- 재정: 장윤기(팀장) 이영희1 노애리

2020년 교회행사담당부서

일정	행사명	담당부서	회장
6.6(토)~6.25(목)	흥해작전 (본부장 오광환 장로)	베드로선교회	장상국 집사
		퇴폐전도회	김영현 집사
		모세선교회	박광식 집사
		한나전도회	박현영 권사
9.24(목)~9.25(금)	바자 (본부장 임상헌 장로)	빌립선교회	최근우 집사
		도르가전도회	조현정 집사
		바울선교회	이원석2 집사
		마리아전도회	최정숙4 집사
		이삭선교회	윤명구 집사
10.4(주)~11.22(주)	사명자 대회 (본부장 이계홍 장로)	리브가전도회	김인숙2 권사
		안드레선교회	이겸손 집사
		루디아전도회	신아령 집사
		엘리아선교회	노제현 집사
		에스더전도회	김정제 권사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임연주(해외) 안홍희·전화진 윤요섭·안재희
윤종현 (누락분은 다음 주 기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헌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헌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헌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지금 계좌와 다른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 예) 흥길동십일조
- 흥길동선교
- 흥길동주일
- 흥길동비전
- 흥길동지원교회
- 흥길동특별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지난 해 목회정책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7(주)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0(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윤이예요.
항상 맛있는 음식도 사 주시고 어렸을 때는 재밌게 놀아 주시고 지금은 학원에 데려다주셔서 감사해요.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에게 해주신 기도가 제게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또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지키는

노윤이가 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주일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학교도 못 가고 있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해요. 우리 꼭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손녀 노윤 올림.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설 연휴때 뵈고 석 달이 넘게 못 찾아뵈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요양원 면회가 안 돼서 엄마를 못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참 힘든거 같아요.
몇 달 전 옛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찾은 사진 한 장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돌 즈음 되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어린 절 포대기에 업고서 교회에서 찬양 발표를 하시는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그저 습관처럼 엄마가 데리고 가는 교회였고 말씀을 듣는 어린 저였지만, 엄마가 가족을 향해 심은 기도가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감사함을 느낍니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집안 곳곳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적어 붙여 놓으셨고, 주일성수 지키기를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강조하셨던 엄마의 가르침을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음보다 성적이 좋은 것보다 외가 식구 중 두 분이나 목사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가정인 우리 가정임을 더 자랑스러워하셨던 엄마의 빛나는 눈이 그림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

도...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엄마를 보는 우리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의 힘듦안에 감혀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의지한 저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신 엄마의 사랑에 늘 감사해요.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살아내는데 바쁜 우리 가족에게 엄마가 아프다는건 슬픈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 가족이 온전히 엄마만을 바라보고 엄마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단단한 구성원이 되게 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을까요?
기억을 잃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70인 전도대 활동을 놓치지 않으셨던 엄마 모습이 그립습니다. 가족의 발길이 끊어져 흑시라도 슬피 울고 계시진 않을까 염려되지만 엄마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조각으로 남은 엄마의 기억 가운데 세상 걱정근심 다 내려놓고 그저 하늘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게요.
코로나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나면 엄마가 좋아하시는 커피 타 드리러 하진이 하윤이 데리고 얼른 엄마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조상희 집사 (12교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주일 찬양 준비로 바빴습니다. 올해는 상황에 맞게 서울교회 어르신들께 드리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를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유·초등부의 아이들과 부모님의 찬양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묵상하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유수진 집사(유·초등부 지휘자)





임대중 집사 (유아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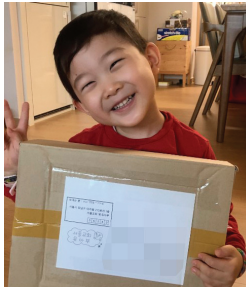
그동안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의 만남과 소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자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영·유아·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선물"을 아이들의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지난 주 모든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영·유아·유치부 가정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우 집사·고민정 집사 (최아준·최수아 어린이)

아준이는 어린이날 "사랑의 선물"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기도문 해줬어요!

심우진 목사·공나영 사모 (심기연·심기찬 어린이)

오늘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 너무 감사해요. 귀하게 잘 쓰고 먹을게요. 기찬이와 기연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유은철 집사·조현정 집사 (유하민 어린이)

하민이도 엄청 기뻐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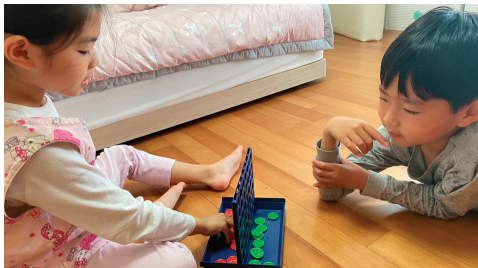
김동욱 집사·이수경 집사 (김례아 어린이)

유치부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잘 받았습니.^^ 레아가 언니만 선물 받았다고(초등부에서 먼저 보내준) 살짝 속상했는데 마침 선물이 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관섭 집사·하혜심 집사 (김재경 어린이)

두 달 동안 하루종일 부대끼며 사이가 안좋아진 남매가^^ 유치부 선물로 사이좋게 게임합니다. 선생님들의 배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양세현 성도·김나윤 성도 (양혜승 어린이)

교회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받고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감사한 마음에 연락 드렸습니다. 출석하지 못함에도 넉넉히 저희까지 생 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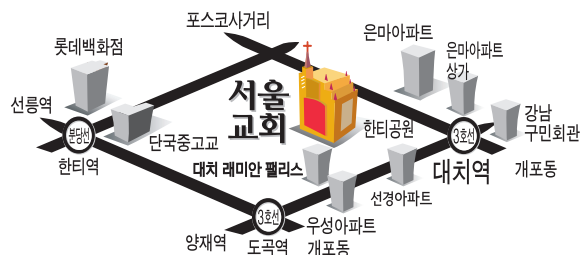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1일	월	대하 6-7		율 1-3, 암 1-9	
5월12일	화	대하 8-11		욥, 은 1-4, 미 1-7	
5월13일	수	대하 12-16		나 1-3, 합 1-3, 습 1-3	
5월14일	목	대하 17-20		학 1-2, 속 1-14	
5월15일	금	대하 21-24		말 1-4, 마 1-4	
5월16일	토	대하 25-28		마 5-9	
5월17일	주일	대하 29-30		마 10-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